



해외 타이어업체 동향

1. 브리지스톤의 중기 경영계획

최근 일본 브리지스톤(Bridgestone Corp.)사는 동사의 중기 경영계획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서 브리지스톤 荒川詔四 사장은 브리지스톤이 현재 “명실 공히 세계 1위의 지위 확립”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나 리먼 쇼크 등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수요의 감소 및 불확실한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에 따라 ① 원재료의 가격, ②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차이, ③ 고객의 가치관의 변화가 명확함에 따라 현 상황을 100년에 한번 올 수 있는 위기로 간주하고 “현재의 사업기반의 전체적 변경”을 강조하였다.

1. 총괄

최근 브리지스톤의 중기 경영계획에서 강조된 “현재 사업기반의 전체적 변경”은 타사대비 압도적인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① 런플랫과 초고성능, 재생타이어를 활용한 솔루션 비즈니스, 특수타이

어 등의 전략상품 사업 확대, ② 수직통합체계 설립을 통한 원재료 수준 연구부터 최적화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의 향상, ③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시장에서의 타이어사업 확대전략, ④ 다각화 사업의 선택과 집중, ⑤ 환경활동 및 환경 대응 상품 사업 확충 등을 그 구체적인 추진사업으로 포함하고 있다.

《 브리지스톤 MTP2010 실적목표 》

- 총자산순이익률(ROA) 목표 : 2012년 6% 도달, 2013년 이후 변경
- 매출 : 2012년 3.5조엔
- 영업 이익 : 2012년 2,800억엔
 - 영업이익 증가 요인 (09년~12년)
 - 전략상품확대 + 650억엔
 - 합리화노력 + 400억엔
 - 다각화사업 + 450억엔
 - 판매수량증가 + 550억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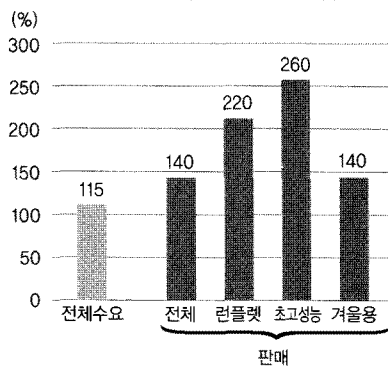
2. 구체적 추진 사업

(1) 타이어 전략상품의 사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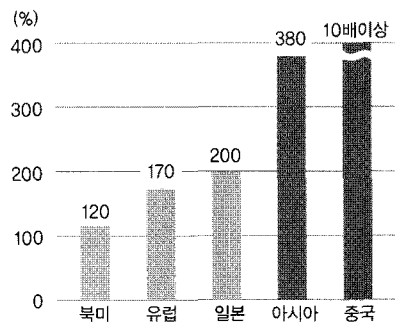
승용차용 타이어 부문에 있어서는 런플렛타이어, UHP(초고성능)타이어, 겨울용타이어를 전략상품으로 지정, 운영토록하며 향후 전체적으로 일반 래디얼 타이어 대비 상회하는 비율로 운영할 방침으로, 2009년 대비 2015년 까지 런플렛타이어는 2.2배, UHP 2.6배, 겨울용타이어는 1.4배로 전체적으로는 일반 래디얼 타이어 대비 1.4배의 성장률로 추진할 계획이다.

트럭·버스용 타이어 부문에 있어서는 재생타이어를 활용한 솔루션 비즈니스를 전 세계로 확산, 신흥시장에도 동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적용할 계획이다. 재생타이어의 판매 신장은 2009년 대비 2015년에는 북미지역 1.2배, 유럽 1.7배, 일본 2배, 신흥국 중 브라질 3.8배, 중국은 10배 이상으로 신장시키도록 하며, 이에 따라 재생타이어 부품소재 공장의 확대 및 반달(Bandag) 재생타이어 생산 공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특수용타이어 부문에서는 광산 및 건설 차량용 대형 OTR 래디얼 타이어의 2010년 판매금액이 7%인데 비해 영업이익은 14%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2015년 수요는 2009년 대비 1.4배, 판매는 1.6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하였다. 이에 따라 총 240억엔을 투자하여 北九州 공장의 생산능력을 2013년 하반기에 130톤 까지 증대하고 佐賀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틸코드의 생산도 병행해서 증산할 방침이다.

〈 승용차 타이어(REP) 판매 (09년~15년) 〉



〈 리트레드 타이어 판매 (09년~15년) 〉



(2) 기반환경 변경을 통한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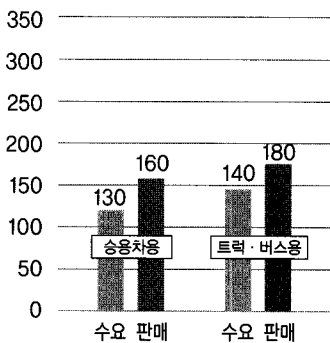
브리지스톤은 천연 및 합성고무, 카본 블랙, 스틸 코드 등 원재료 부문에서 “현재 사업기반의 전체적 변경”이라는 기본 전략 하에 부품 및 최종제품 까지를 포함한 “사업 수직 통합”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브리지스톤의 ‘MTP2010’란 수직 통합체계를 만들어서 원재료 수준평가 연구부터 최적화 기술 개발을 통하여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수직통합의 상층부는 성능 및 단가를 원재료 수준에 따라 조정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원재료 개발 및 활용의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하층부는 최적상품 및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소매 네트워크 확충과 물류개선을 실시하는 것이다.

(3) 신흥타이어시장에서의 지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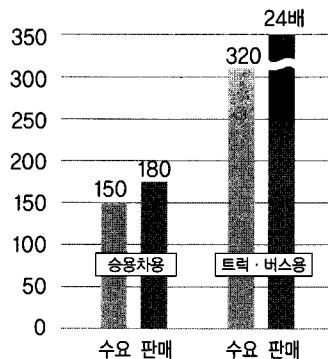
브리지스톤은 현재 신흥국 지역에서 생산 및 판매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생산거점의 증강과 신설을 위하여 글로벌한 관점에서 자국시장에 가장 적합한 설비 및 기술을 최대한 투입하여 그 지역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범용타이어를 중심으로 원가 경쟁력과 전개 스피드가 주요 경쟁 요건이 되는 신흥국 시장에서의 향후 방향은 과거 선진국에서 시행하던 방법을 지양하고 자동차산업 선진화를 예상하여 단계별 접근 방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MTP2010에 따르면, 2015년 지역별 판매는 2009년 대비 중국시장에서 승용차용이 2.4배, 트럭·버스용이 2.9배 각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인도는 승용차용이 1.8배, 트럭·버스용이 24배, 브라질 시장에서는 승용차용이 1.6배, 트럭·버스용이 1.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의 달성을 위하여 중국 無錫 공장 (2011년 하반기, 승용차용 일간4,200개 증산), 인도 제 2 공장 (2020년 완료, 승용차용 일간 1만개 증산, 트럭·버스용 일간 3,000개 증산)을 증설 및 설립하고, 브라질은 기존 공장의 증설을 검토하고 재생타이어 거점을 활용토록 한다. 그밖에 인도네시아 공장 (2012년 승용차용 일간 3,000개 증산), 태국 공장 (2014년 승용차용 일간 13,500개 증산), 폴란드 공장 (2014년 승용차용 일간 5,600개 증산)의 각각의 증설을 추진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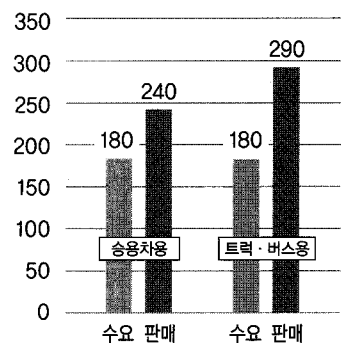
〈 브라질 판매시장 (09년→15년) 〉



〈 인도 판매시장 (09년→15년) 〉



〈 중국 판매시장 (09년→15년) 〉



(4) 사업다변화에 따른 선택과 집중

사업다변화는 집중적인 화학공산품 사업의 글로벌 전개로 대처한다. 그린 에너지 보급의 일환으로 태양 전지용 EVA 필립 사업부는 왕성한 태양전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거점이 있는 磐田공장과 關公장의 추가 증설을 결정하였다. 총 투자액은 磐田 공장의 경우 42억 엔, 關 공장의 경우 40억 엔이며, 양 공장 모두 월간 1,200톤씩 2,400톤을 증산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상반기에 磐田 공장의 경우 4,200톤, 關 공장의 경우 2,400톤으로, 총 6,600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본격 사업화한, 색깔을 적용하거나, 잘 구부러지는 전자페이퍼 사업도 신규 브랜드 "AeroBee"를 설립하여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거점인 磐田 공장의 경우 전자페이퍼 신설 제조라인을 만들어 금년 9월부터 생산을 실시하였다. 총 투자액은 10억 엔으로 생산능력은 A3사이즈로 한 산해서 월간 15,000매이다. 태양전지용 EVA필립과 전자페이퍼는 환경상품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신흥국으로 글로벌하게 사업전개 예정이며, 사이클 사업 스포츠 사업도 성장위주의 정책 실시 예정이다.

(5) 환경개선 활동, 친환경 상품 사업의 확충

브리지스톤은 금년 4월 30일 '지구온난화 방지 지속가능회사'로 선정되면서 이산화탄소(CO₂) 배출절감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단일품목 제조 시 CO₂배출량의 35% 감소'와 '타이어 회전저항 25% 감소'의 목표를 2020년 까지는 그룹 전체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브리지스톤은 9월 27일 "생물 다양성에 관한 대처 자세"를 발표하여 동식물과 생태계 보존에 따른 연구 교육활동을 통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전달하였다.

친환경 상품 사업은 저연비 'ECOPIA' 브랜드 타이어 상품군에 대해서 승용차용은 2011년, 트럭·버스용은 2015년까지 글로벌화를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승용차용의 ECOPIA 제품 판매는 2015년까지 2009년 대비 22배로 대폭 확대하고, 중국과 브라질, 기타 신흥국 지역의 판매 비중을 전체 판매의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자료 : 일본 '고무報知신문' 2010. 12. 6일자〉

2. 해외 주요 타이어업체 최근 동정

브·리·지·스·톤

OTR 타이어 및 스틸코드 생산 확대

Bridgestone Corp.는 240억 엔을 투자, 일본 Kitakyushu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광산 및 건설용 차량에 사용되는 (초)대형 OTR 래디얼 타이어에 대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세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Kitakyushu 공장에서의 생산 능력은 확대 조치가 완료되는 2013년 하반기에 일간 130톤으로 증가된다. 또한 동사는 일본 Saga 공장에서 대형 OTR 타이어에 사용되는 스틸코드의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며, 동 확대 생산은 2013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자료 : 유럽 「Tyres & Accessories」 (2010.11월호)〉

브리지스톤 및 스미토모

트럭·버스용 타이어 판매가격 7% 인상

Bridgestone Corp.과 Sumitomo Rubber Industries Ltd.는 2년 반 만에 일본 국내에서 트럭·버스용 타이어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브리지스톤은 지난 12월 6일, 스미토모 고무는 12월 10일부터 7%씩 인상하게 된다. 이 같은 인상은 타이어 원재료 특히 천연고무 가격이 2년 전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가격 급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9월 실시되었던 타이어 제품별 3-10%의 판가 인상조치 이후, 타이어의 주 원재료인 천연고무는 인도, 러시아, 중국 등 신흥국에서

그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원산지에서의 호우 등 기후조건이 나빠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의 급등이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브리지스톤은 미국시장에서 승용차용, 소형트럭용 타이어의 판매가격을 3회 인상하였고, 트럭·버스용타이어는 2회, 그리고 유럽에서는 전체적으로 2회 실시 하였으며, 중국 및 인도 등 신흥국에서 2-3회 실시하였다. 또한 신차용(OE) 납품 타이어에 대해서도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가격연동제를 실시중이며, 12월 현재 과반수 이상의 신차용(OE) 업체에 적용중이다. 일본 매출 상위 2개사인 브리지스톤과 스미토모 고무의 판매가격 인상에 따라 일본 요코하마와 토요사에서도 타이어의 판매가격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일본 「타이어신보」 (2010.12.13일자)〉

콘·티·넨·탈

2010년 250억 유로 이상 매출 예상

Continental Corp.는 2010년에 250억 유로 이상의 매출과 9%의 세전 영업이익(EBIT)을 전망하였으며, 동 영업이익률은 당초 8~8.5%의 목표치를 상회하는 것이다. 동사의 이 같은 연간 실적 전망은 금년 3/4분기 실적과 함께 나왔는데, 금년 1~9월간 동사는 191억 유로의 매출과 17억 9,000만 유로의 세전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다.

〈자료 : 유럽 「Tyres & Accessories」 (2010.11월호)〉

피·렐·리

남미 아르헨티나 공장 생산 확대

Pirelli는 1억불을 투자하여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Merlo 공장에서의 생산능력을 2013년까지 연간 600만개 까지 확대함으로써 남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아르헨티나 시장에서의 동사 매출은 2010년 말까지 55% 증가한 3억 6,500만 불이 예상되며, 2013년 목표치는 5억불이다. 동사는 1951년부터 Merlo 공장을 운영하여 왔으며, 현재 승용차, SUV 그리고 소형트럭용 타이어를 연간 500만개 이상 생산하고 있다. 이는 현재 남미시장 전체 타이어 생산의 10% 수준이며, 승용차용 타이어로는 20%이다.

(자료 : 유럽 「Tyres & Accessories」
(2010.11월호))

멕시코 타이어 공장 설립

Pirelli는 지난 11.6일 멕시코 Silao에 2억 1,000만불을 투자하여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 공장 건설에 착공하였다. 동 공장은 2012년 상반기까지 생산이 개시될 계획이며, 최초 생산능력은 일간 10,500개이며 2015년까지 일간 14,000개, 연간으로는 600만개까지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멕시코 신규 공장 설립은 북미지역 고성능 타이어 성장 전망에 따른 조치로서, 향후 동 공장의 생산량 중 70~80%는 미국과 캐나다 수출용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동사는 2013년까지 북미시장은 약 10%의 연성장률을 보이면서 금년 약 5억 2,500만 불에서 약 7억 2,500만 불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료 : 미국 「Tire Business」 (2010.11.22일자))

요·코·하·마

미국 Salem 공장 생산능력 확대

미국지역 승용차용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Yokohama Tire Corp.는 Virginia 주 Salem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 확대 계획은 2011년 8월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1,300만 불이 투자되는 동 계획은 신규 타이어 제조설비 도입 및 기존 설비의 현대화 및 업그레이드, 그리고 고성능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 제조의 유동성 증가를 포함하고 있다.

(자료 : 유럽 「European Rubber Journal」
(2010.11·12월 통합호))

토·요

말레이시아 타이어제조사 인수

Toyo Tire & Rubber는 말레이시아의 Silverstone Berhad 타이어제조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사의 이사회는 Silverstone사의 유일한 주주인 Silverstone Corporation Berhad의 주식 매입에 합의하였으며, 동 인수 조치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주식인수는 2011년 1월 말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소요의 비용은 약 125억 3,800만 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유럽 「Tyres & Accessories」
(2010.11월호))